



하늘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레저여행

바야흐로 완벽한 봄이다. 날이 따뜻해지면 야외 활동도 늘어난다. 본격적인 레저 시즌이 도래하는 것이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기점으로 전국의 강과 바다, 하늘은 레저 부대원들로 북적대기 시작한다. 초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카약, 웨이크보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창공과 초록이 녹아 흐르는 수면에서 즐길 만한 레저 리스트를 소개한다.

글/장성배 기자 · 사진/연합뉴스 DB센터



» 초경량항공기

한반도는 아기자기한 능선과 물길이 어우러져 초경량항공기(Ultra Light Plane)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알려져 있다. 초경량항공기 체험자들에 따르면 '작은 프로펠러의 힘으로 떠올라 하늘 끝에 닿을 듯 창공을 주유하면 일상의 번잡함이 모두 잊힌다'고 한다.

초경량항공기는 항공법상 자체중량 150kg(1인승) 또는 225kg(2인승) 이하의 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연료탱크 부피가 최대 19ℓ(1인승) 또는 38ℓ(2인승) 이하다. 프레임 소재 또한 가볍고 단순하다. 날개와 바퀴를 고정시킨 동체에 프로펠러를 하나 얹은 형태다. 한국에 처음 소개된 1980년대 초반엔 행글라이더에 소형엔진을 달고 이륙했다고 한다. 기종은 조종 방식과 외형 등에 따라 타면조종형(ULP), 체중이동형(ULM) 등으로 나뉜다. 조종스틱으로 작동하는 ULP는 고정익(Fixed Wing)이라 불리며 경비행기와 흡사한 형태다. 가장 많이 보급돼 활주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ULM은 중량의 중심을 이동시켜 조종을 하는 형태로 행글라이더와 비슷하다. 삼각 컨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회전, 상승, 하강한다.

초경량항공기 조종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20시간의 실습 비행 후 단독 비행이 가능해지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이론 및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자신이 교육받은 곳에서 연습용으로 탔던 기종으로 치르며, 합격하면 자격증 뒷면에 해당 기종이 명시된다. 조종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30여 곳의 초경량비행장 어디에서나 항공기를 빌려 날아오를 수 있다.

강습 관련 정보

현재 전국에 29개의 비행클럽이 운영 중이며, 조종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강습비는 비행클럽과 기종에 따라 다르다. 대한스포츠항공협회 홈페이지(www.kulaa.or.kr)에 전국 공인 비행클럽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그중 경기 안산 시화호 일대는 초경량항공기의 본거지로 꼽힌다.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비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활주로가 들어섰는데, 특히 여름에는 에어로피아항공(031-357-4116)을 비롯한 5개의 클럽이 위치해 있다. 에어로피아항공의 경우에 강습 비용은 자격증 취득까지 300만~400만 원, 체험 비행 요금은 15분(5만 원)/25분(8만 원)/35분(12만 원), 항공기 대여료(자격증 소지자)는 1시간당 8만~12만 원이다.

2009 국제레저항공전(International Sky Leisure Expo)

경기도와 안산시는 5월 1~5일 안산 사동 옛 챔피언경기장 부지에서 2009 국제레저항공전(www.skyexpo.or.kr)을 개최한다. 국내외 레저 항공기 100여 대가 선보이는 이번 레저항공전은 관람에 그치는 기존 에어쇼와 달리 관람객들이 직접 초경량비행기에 시승하고 분해 및 조립에도 참여해볼 수 있다. 또 레저 항공기의 공중곡예와 편대 비행, 모터패러쇼를 LED 중계시스템으로 한눈에 즐길 수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항공 체험 교실, 과학교사와 학생을 위한 항공 캠프,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등도 마련된다. 입장료는 3천 원(청소년 2천 원)이다. 031-500-4910

초경량항공기는 계기판도 매우 단순하다. 고도계, 속도계, 연료 게이지 등 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만 갖추고 있다. 구조와 운용이 단순해 누구나 쉽게 조종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단, 육안으로 길을 찾는 시계비행만 가능해 야간이나 안개로 인해 전방과 지상의 목표물을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된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연을 만끽하며 하늘을 나는 방법이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캐노피(날개)와 수심 기막의 산 줄로 연결된 하네스(조종석)에 앉아 지상을 내려다보면 이보다 더 큰 호사가 없다.

»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항공레저다. 신체적 부담이 거의 없다. 묘기를 부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승과 하강에 따르는 느낌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의 체감과 비슷하다. 또 비상 낙하산이 안전을 담보해 소파에 앉은 듯한 자세로 편안히 하늘 아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의 효시는 1984년 프랑스 산악인이 낙하산을 개조해 비행에 성공하면서부터다. 깎아지른 험준악산이 즐비한 유럽에선 등산 못지않게 하산이 힘들어 쉽고 빠르게 산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이후 낙하산의 안정감과 글라이더의 비행성을 접목시킨 항공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첫 패러글라이딩 비행은 교관과 함께 타는 2인승 탠덤(Tandem)이 일반적이다. 소파 모양의 폭신한 하네스(Harness)에 몸을 깊숙이 넣고 허공을 부유하며 푸른 하늘과 땅을 조망하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간식까지 먹으며 몇 시간이고 떠 있는 것도 가능하다.

단독 비행은 일정한 시간의 기초교육 이후 가능하다.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고도를 원만하게 내리며, 안정감 있게 착륙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레포츠처럼 패러글라이딩도 꾸준한 연습 없이는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복 훈련이 필수다.

패러글라이딩 장비에는 캐노피(날개), 하네스(조종석), 비상낙하산, 속도계(풍속과 비행속도 표시), 고도계, GPS, 무전기 등이 있다. 스쿨이나 클럽에서 대여해 사용하다가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하나씩 갖춰 나가면 된다. 물론 헬멧과 장갑은 지상연습 때부터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강습 관련 정보

현재 한국항공협회(www.khpga.org)에 등록된 패러스쿨이 60여 개에 달한다. 교육 과정은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뉘며 대개 비행의 원리, 장비 명칭 등 이론부터 시작한다.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지상연습을 거친 후 실제 활공장에서 뛰어내린다. 이후 차츰 고도를 높여가며 열기류를 찾는 방법과 다양한 조종기술을 익힌다. 강습비는 한국패러글라이딩학교(www.korea-para.co.kr)의 경우에 기초 과정(5~6주)이 30만 원, 파일럿 과정(3~12개월)은 단계별로 30만~40만 원이다. 강사와 함께 타는 2인승 탠덤비행 요금은 기본 과정(10~20분) 7만 원, 사면비행(20~30분) 12만 원, 열기류비행(30분 이상) 15만 원이다.

전국 유명 활공장

- 충북 단양 양백산 - 전국 최대 규모의 활공장(2천800m)이 조성돼 있어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여러대가 한꺼번에 이륙할 수 있다.
- 경남 문경 단산 - 분지 지형으로 상승기류가 잘 형성되고 백두대간 명산에 둘러싸여 있어 전국 최고의 활공장으로 꼽힌다.
- 경기 용인 정광산 -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차량으로 임도를 따라 정상까지 갈 수 있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비지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



» 카약

카약은 북극해 이누이트족의 유산이다. 이누이트족은 바다표범을 포획해 그 가죽과 뼈로 앞뒤가 날렵한 유선형 카약을 만들어 사냥에 나섰다. 현대에 들어와 카약은 수렵용에서 레저용으로 변모했다. 현재 강과 바다와 호수의 물길을 탐색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꼽힌다.

카약과 카누는 선체 구조와 노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카약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 윗부분이 물막이 판으로 덮여 있다. 패들도 양날(더블 블레이드)이다. 카누는 오픈 데크(Open Deck)이며 싱글 블레이드다. 앉는 자세와 노를 젓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두 종류를 분리하지 않고 카누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카약은 분해 가능 여부에 따라 조립식과 일체형으로 나뉜다. 승선 인원수에 따라 1인승, 2인승, 4인승 등이 있다. 1인승 싱글정이 일반적이다. 길이는 급류 계곡에서 즐기는 프리스타일용 카약이 약 2m, 바다에서 타는 시카약이 4m 이상이다. 길이가 짧으면 회전성이 좋고, 길면 직진성이 뛰어나다. 국내 제품은 낚시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분류되는 액트로스카약(www.actros.co.kr), 일본 수입품은 투어링카약으로 분류되는 후지타카약(http://cafe.daum.net/fujitakayak)이 대표적이다.

카약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우선, 시트에 허리를 걸치고 발을 전방으로 뻗어 하체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곧게 뻗어 패들(Paddle)을 사선으로 수면에 꽂아 넣는다. 물의 저항을 받아 힘이 차오른 패들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노는 생각보다 가볍다. 팔의 연장선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다. 물론 노를 젓는 일은 녹록지 않다. 팔이 아닌 몸 전체를 이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패들을 통해 팔 근육으로 전해지는 물길의 방향과 속도를 가능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패들을 수면에 제대로 꽂지 못하면 팔의 근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물속에서 풀어져버린다. 밀려오는 물의 힘에 편승하는 방법이 몸에 익으면 차츰 배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강습 관련 정보

카약은 노 활용법과 안전수칙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수상레저 업체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풍광이 뛰어난 강원도 동강은 국내 최고의 카약 코스로 꼽힌다. 남한강, 홍천강, 영종도, 청평호, 남이섬도 카약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다. 한강은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에서 카약 투어가 가능하다. 단, 진행 방향이 서로 다른 물결이 겹쳐서 생기는 삼각파도를 주의해야 한다. 카약이 삼각파도에 부딪히면 전복될 수 있다. 한강이나 북한강에서도 모터보트와 제트스키가 가깝게 지나가면서 불규칙한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카약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특히 바다로 나갈 때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노 젓는 요령만 터득하면 카약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카약 노는 선체에 고정돼 있지 않아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하다. 특히 양쪽에 날이 달려 있어 좌우 교대로 물살을 가를 수 있다. 복잡한 스트로크 등 카약 특유의 패들링을 익히면 급류건 바다건 마음먹은 대로 어디든 저어갈 수 있다.





새처럼 수면을 차고 날아오르는 짜릿한 기분은 카이트보드만의 매력으로 꼽힌다.

» 카이트보드

카이트보드는 이름 그대로 연(Kite)에 연결된 보드(Board)를 즐기는 수상레저이다. 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해 카이트서핑(Kite Surfing)으로도 불린다. 1990년대 유럽과 하와이 등지에서 파도를 타던 서퍼들이 바람이 약한 날에도 서핑을 즐기는 방법을 찾다가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바람을 유일한 동력으로 삼아 수면을 질주하다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카이트보드를 타려면 우선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장애물이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받지 않는 곳이 좋은데, 장애물이 많은 강보다는 탁 트인 해변이 더 좋다. 양쪽으로 빌딩이 가로막고 있는 한강은 바람의 굴절이나 돌풍이 많아 카이트 조종 능력을 키우는 데는 좋으나 트릭을 연습하기에는 좋지 않다. 또한 제주도 해변의 경우는 돌이 많아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강을 비롯해 경기 시화호 형도, 충남 대천 등이 카이트보드를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카이트보드 장비는 크게 카이트, 보드, 라인 등으로 나뉜다. 카이트에는 공기를 주입하는 튜브가 들어 있다. 물에 떨어져도 다시 띄울 수 있도록 고안돼 있는데 공기를 빼고 접으면 작은 배낭 크기까지 부피가 줄어들어 휴대가 편리하다. 보드는 일반적으로 발을 끼우는 스트랩(Strap)이 달려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스키 부츠처럼 발목 지지대가 달린 것도 있다. 카이트 라인은 카이트와 보드를 연결한다. 보통 컨트롤 바와 함께 달려 있다. 카이트 크기에 따라 컨트롤 바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라인의 길이는 15~30m이다. 라인은 짧을수록 조종하기 힘들고 카이트에 실리는 힘도 약하다. 반면에 길수록 힘이 더 강하다.

일반적으로 카이트보드는 초속 4m 이상의 바람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 물론 바람이 세면 점프와 공중회전, 뒤면 서 보드를 잡는 기술 등 다양한 묘기를 구사할 수 있다. 단,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거나 측면으로 불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강습 관련 정보

한강 뚝섬에 위치한 주티클럽(www.zootyclub.com)을 비롯해 전국에 5곳의 카이트보드 강습클럽이 운영된다. 주티클럽의 경우에 기초 과정(4일) 강습비는 60만 원이다. 기초 과정을 마치면 보드에 올라 수면을 차면서 이동하는 라이딩(Riding)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장비 구입비는 총 250만 원 안팎이다.

카이트보드는 물에 적응하고 바람을 타는 법을 익히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물론, 풍력에 따라 카이트에 갑자기 큰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는 미국 젊은이들이 파도가 없는 호수에서 서핑을 즐기기 위해 보트가 만들어내는 물결을 이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솟아오른 물결을 타는 모습은 서핑과 비슷하고, 물결을 차고 오르며 보여주는 기술은 스노보드의 하프파이프를 닮았다. 웨이크보드의 명칭 또한 보트가 만들어내는 물결 자국(Wake)에서 유래했다. 1990년 제1회 월드컵대회가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 300여 개의 웨이크보드 대회가 세계 곳곳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국내에는 1990년대 중반에 소개돼 동호인 수는 현재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웨이크보드는 종종 수상스키와 비교된다. 수상스키가 스피드를 즐기는 레포츠라면 웨이크보드는 웨이크타기(서핑기술), 점프, 방향 바꾸기, 회전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매력이다. 또 수상스키가 시속 50km 정도로 진행되는 반면 웨이크보드의 진행속도는 시속 30km 정도이다. 웨이크보드는 강습 당일부터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다. 스노보드 경험자라면 타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다. 수상스키보다 부력이 크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안전하다. 물론,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부상 위험도 증가한다.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을 다칠 수 있고, 수면에 세계 부딪힐 때는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될 수도 있다. 항상 자기 실력에 맞는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

강습 관련 정보

한강 뚝섬을 비롯해 양수리, 청평, 가평 등의 수상레저 업체를 통해 웨이크보드를 체험할 수 있다. 기초 과정 강습은 일반적으로 지상연습, 입수, 주행, 기본 점프의 순서로 진행되며 비용은 5만~6만 원이다. 기초 과정 수료 이후에는 1회당 2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다. 보드, 바인딩, 로프와 핸들, 구멍조끼, 웨이크용 반바지 등을 모두 구입할 시 100만 원 정도 든다.



여름 레저의 꽃으로 불리는 웨이크보드는 고난도 점프와 회전 등 다채로운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수상레저 중 가장 화려하고 박진감이 넘친다.

» 스쿠버다이빙

스쿠버(SCUBA)는 자기 수중 호흡 조절장치(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사람이 물고기처럼 물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말한다. 스쿠버다이빙에 입문하면 처음에는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된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산호 사이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의 신비와 감동이 옷이 전해진다. 수만 년 동안 경관이 크게 변하지 않는 육지 생태계와 달리 바다는 낯설고 경이로운 풍경을 선보인다. 물론, 스쿠버다이빙이 항상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다 속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 스쿠버다이빙은 체력적인 부담이 큰 레저에 속한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 물살을 헤치고 다니다 보면 단시간 내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특히 장비가 30kg에 육박해 강한 근력이 필수적이다.

강습 관련 정보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이 부여되는 오픈 워터 다이버 과정은 풀장교육과 해양실습으로 구성된다. 강습 비용은 뉴서울다이빙풀(www.scubapool.com)의 경우에 풀장교육(3~4일) 15만 원, 해양실습(2일) 20만~30만 원이다. 물에 들어가기 전 장비사용법과 함께 안전수칙, 비상 시 대처요령,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기상현상 등에 대해 익힌다. 오픈 워터 다이버 과정을 마치면 국내외에서 모두 통용되는 다이버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를 지참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장비를 빌려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



해저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탄생시킨 것이 바로 스쿠버다이빙이다. 바다의 속살을 직접 대면하면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생태계에 감동을 느낀다고 한다.